

군산관광, 고군산 도서관광 접목

시, 육지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고군산 명품화 사업 추진 통해 체류 관광으로 유도

군산시가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근대문화유산 위주의 육지관광과 해양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고군산 군도 중심의 도서관광 육성을 통해 300만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군산은 타지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체류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군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전면개통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비한 주차장 조성 및 내부도로 개설, 관광인프라 분야 등 12개 부서가 추진하는 총 19개 단위사업을 통해 최고의 해양관광 명소로서 도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수 지체행정국장은 "고군산군도

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도서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보존을 통한 명품 관광지로 바꾸어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며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근대문화지구로 집중된 관광객 분산효과 및 도서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차례의 현장방문과 고군산 세부과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고군산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북도 및 중앙정부 역시 고군산을 글로벌육성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 위주의 육지관광과 해양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고군산 군도 중심의 도서관광 육성을 통해 300만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 전북도

'농식품산업 인력양성 교육과정 교류·협력' 협의

전북도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지난 17일 대학 본관에서 '농식품산업 인력양성 교육과정 관련 산학연관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 협의를 위해 전북도청 농식품산업과 박종현 식품클러스터팀장과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영주 부장,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 협의를 통해 전북도의 농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과 식

품클러스터 조성 및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들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과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우리 대학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산업인 농식품 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

군산시는 정보와 자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현재까지 구축, 운영 중인 모든 시스템은 방정부 EA포털 사이트에 등록하여 통합 관리하고, 구축 후 5년이 경과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 비용적 측면과 업무효율적 측면으로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 폐기하거나 통합할 또는 재개발 등 개선방안 결정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난이도를 산정하여 유지보수 등급을 1~5등급으로 측정하고 내년도 유지보수비 예산요구 내역에 반영하여 유리관리비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야간민원 서비스 '호응'

군산시는 야간민원 서비스 운영(매주 목 18시~21시)으로 '야간 여권업무'와 '찾아가는 120생활민원'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발급한 2,159건의 여권 민원 중 3.7%인 748건이 야간 민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찾아가는 120생활민원은 어린이보호구역 105개소와 어린이공원 74개소의 각종 시설물을 집중 점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장현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분주'

세종 정부청사 방문 사업담당자에 지원 당부... 5월말까지 추가 방문 예정

익산시가 중앙 부처의 예산 편성 시 작과 함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8일 시 주요 현안사업을 추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를 접견하고 적극적인 익산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과 연무IC를 잇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방비 60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계속사업으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1,892억원) ▲국도고속도로 클러스터 조성(137억원) ▲국도 27호(서수~평장)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3,652억원)과 신규사업인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147억원)의 사업추진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의 첫걸음은 사업발굴이고, 그 다음이 중앙부처 방문이다. 중앙부처에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중앙부처를 방문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중앙부처 예산 반영이 이뤄지는 5월말까지 몇 개의 중앙부처를 추가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출산장려 민·관 업무협약 체결

관내 21개 기관·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익산시는 18일 오후 상공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21개 기관·단체 및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인 만큼 민·관이 함께 출산장려 분위기를 주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각 기관·단체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지

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을 출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제도 실천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을 추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익산상공회의소 최병선 회장은 "기업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근로환경을 출산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 지역사회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과 단체 등에게 포상 등 익산시의 인구가 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아 출산시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출산장려금 30만원을 함께 전달하고,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외에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도 병행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할인업체 모집

군산시, 6월 30일까지

'군산시가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출시를 대비해 군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할인을 제공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할인업체 모집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시에서는 '전북투어패스 구축사업' 특별할인가맹점 152개 업체와 시티투어 주요코스를 중심으로 우선 모집하고, 그 외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추가모집 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군산시 소재 주요 관광 시설 주변업소 및 유료관광시설로서 ▲맛집,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등 위생이 청결한 음식점 ▲관광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숙박이 가능한 업소 ▲제과점, 카페, 전통찻집 등 휴

게음식점 ▲공연장, 찜질방 등 각종 체험시설 등이다.

시는 대상업소와 협의하여 ▲공연장 50%이상 ▲맛집·숙박·레저 업소 등 10% 이상 ▲체험·제과·찻집 등 5% 이상 ▲자유관광시설 20% 이상의 할인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6일 시범운행을 앞둔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업체에게는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 시간여행 시티투어 어플리케이션, 언론, SNS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광객들은 시간여행 시티투어 탑승자 명찰 등을 착용하고 할인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할인업체를 희망하는 업체는 군산시 청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관광진흥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한국세라믹학회 춘계학술대회, 오늘 GSCO서 개막

2017년도 한국세라믹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군산 GSCO(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군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세라믹 및 신소재 관련 춘계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명이 참가해 ▲전자세라믹스 ▲에너지 환경 세라믹스 ▲엔지니어링 세라믹스 ▲나노융합 세라믹스 등 총 9개 일반 세션, 14개 주제별 심포지엄, 600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일에는 LG화학 재료연구소의 조승범 박사가, 21일에는 폴란드 세라믹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AGH 과학기술대학교의 즈비그뉴 페드지크 교수가 각각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또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자와의 토론 및 교류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조강연회가 개최되어 세라믹 관련 최신 장비 및 분석 기술을 홍보하고 관련 업체 간 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